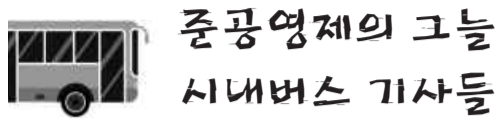


# 버스 안에서 겨우 쉬는데...연료 모자랄까 에어컨도 못켜



## <중> 열악한 복지

22일 오전 10시께 찾은 '지원 15번' 시내버스 종점인 광주시 북구 태령동 신기마을. 도로변 풀숲 사이로 간 이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가로 폭 80cm 가량의 화장실이 1시간 20분 넘게 운전대를 잡고 간 버스기사들이 머물러 쉬면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휴게시설이다. 도심 속 화장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시설로, 날파리로 들끓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지원 15번 버스기사 A씨는 "누가 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냐"면서 "급한 생리현상은 인근 슈퍼마켓 화장실을 빌려쓰는데 눈치보여 음료수를 자주 사먹고 해결한다"고 했다. 기사들은 인적이 드문 길거리를 찾아 해결할 때도 적지 않다고 한다.

1187번 종점인 무등산 원효사 입구는 아무런 휴게시설조차 갖춰놓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 덕흥동에서 출발, 1시간 25분 걸려 도착했는데 될 공간이 그대로 돌려 1시간 25분을 몰고 가야 하는 셈이다. 노선이 한 개 뿐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출발 대기 중이던 버스기사 B씨는 "종점이지만 이 데위에 햇빛을 피할 곳은 버스 밖에 없으니 버스

기·종점에 휴게실은 커녕 햇볕 피할 공간조차 없는 경우 부지기  
지난해 운송원가 2086억원 중 휴게시설 개선비 5900만원 뿐  
업체도, 1000억 투입한 광주시도 노동자 처우 개선엔 무관심

에서 내릴 수가 없다"며 "버스 안에서 많게는 30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가 모자랄까 에어컨도 못 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곳뿐만 아니라 승촌동, 혁신도시, 동림동, 서광주 회차지 등의 경우도 버스기사들의 휴게공간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하는데도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버스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개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기사들의 복지에 투입한 비용은 약 61억원. 식대, 피복비, 운전원 복지기금 등으로 운전원 1명 당 한해 평균 251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하지만 버스기사들은 "제값을 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한다. 버스노동자들은 "일반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를 특별한 복지 혜택인양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당장, 노사간 단체협약과 여객운송협상에 명시

된 휴게시설조차 갖춰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버스노동조합과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기·종점에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화장실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휴게실은 커녕 폭염을 피할 공간도 없는 기·종점이 부지기수다.

이런데도, 지난해 버스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에 사용한 금액은 고작 5900만원 뿐이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올해 13개 차고지 및 회차지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2억 165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계획도 여태껏 추진되지 않고 있다.

버스기사들은 이때문에 올 임·단협에서도 복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관심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중인 버스기사들의 통근차 운영조차 폐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복지기금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되면 첫 차 운행을 위해 새벽에 2-3시에 집을 나서거나, 자정계 퇴근하는 버스기사들에게 일·퇴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노조 측 얘기가.

버스기사 1인당 12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 태령동 지원15번 종점 인근에 놓인 간이 화장실. 이 간이 화장실이 버스노동자들을 위해 설치된 유일한 휴게시설이다.

는 복지기금도 사측에서는 운송수입 감소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시정질의를

통해 준공영제 하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광주시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불법 수의계약' 백순선 의원 3개월여 만에 검찰 재송치

광주 경찰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경찰이 지난 3월 백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달 뒤인 4월 대가성 입증에 부족하며 수사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3개월여만에 다시 송치한 것이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백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겼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복구청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복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이 참여하는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을 수월하게 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청에 광주 북구청·복구의 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추가 소환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의원 이외에 추가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사경고 통지 없었다면 제적 무효"

광주지법 '학생에게 너무 가혹'...GIST 대학원생 복학 길 열려

이단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대학원생의 '복학의 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광주과학기술원 A씨에 대해 한 제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박사과정 첫 학기인 지난 2019년 2학기에 D학점을 받았다가 학칙에 따라 '1차 학사경고'를 받고, 지난해 1학기 B'학점을 받았지만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평균학점(2.25점)이 학사경고 기준(2.5/4.5)에 미달한데 따라 '2차 학사경고'를 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학생은 3회, 석·박사과정 학생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제적한다',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평균이 2.5/4.5에 미달한 자에 대해 행한다'는 학칙을 근거로 A씨에게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그러나 "1차 학사경고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지도교수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사경고 사실을 해당 학생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통지해야한다'는 학칙(52조 4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했다. 누계 평균으로 학사경고를 하도록 한 학칙은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규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학사경고 사실을 해당 학생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1차 학사경고'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1차 학사경고도 무효인 만큼 박사과정 학생인 A씨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도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교측은 A씨에 대한 학사경고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만 통지하고 지도교수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A씨 지도교수가 알았다면 상담을 통해 보다 학점에 신경을 쓰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더위 끝나면 뭘 배울까

### '생활의 달인' 비법 전수받을까

광주 동구 30일까지 학습자 모집

광주 동구가 지역 내 생활의 달인을 발굴, 달인의 노하우를 지역민들에게 전수하고 배워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구 생활의 달인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학습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인이 강사가 돼 특화된 본인들의 기법과 기술을 다른 지역민에게 재능 나눔을 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양장 달인의 의류 리폼 ▲김치 달인의 광주 전통김치비법 ▲미용달인의 헤어스타일·머리손질 기법 ▲구두 달인의 구두 선택·관리방법 ▲발효달인의 발효식초, 절임 기법 등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13분야를 선정하고 과정당 10명씩 총 13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동구민 누구나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남도 전통 내림음식 배워볼까

광주 북구 31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남도전통음식·광주대표음식' 강좌와 식(食)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남도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광주대표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15주 동안 운영된다.

남도전통음식 강좌는 발효·저장음식·향토음식·

웰빙한식·생활요리 등 5개 과정이며 실습 위주의 강기가 이뤄진다. 광주대표음식 강좌는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광주대표음식, 광주 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과정이 진행된다.

식문화프로그램은 ▲시와 음식 ▲노래와 음식 ▲나무와 음식 ▲도자기와 음식 ▲차와 음식 ▲꽃과 음식 등 7개 과정으로 문학·예술·음악 등을 상호 융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